

안팎 악재 겹친 여수엑스포

랜드마크될 아쿠아리움 등 민자유치 잇따라 무산 같은기간 네덜란드 화훼박람회...관람객 유치 비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핵심 시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형 민자유치 사업들이 잇따라 불발되고,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또 다른 국제박람회가 열리는 등 안팎에서 악재가 겹치면서 성공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기사 3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16일, 박람회 기반시설 가운데 핵심 전시시설로 꼽히는 아쿠아리움에 유일하게 투자 의사를 밝힌 두산과 한화 컨소시엄을 평가한 결과, 사업자 기준에 미달돼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두산과 한화 컨소시엄은 아쿠아리움에 200억 원가량을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500억 원 가량은 재정지원을 요구해와 애초 조

직위가 예상했던 민자 직접투자 규모에 훨씬 못 미쳤다"고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민자유치가 실패한 만큼, 조직위가 아쿠아리움을 직접 건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직위가 국가재정을 투입해 아쿠아리움을 직접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사업자를 제공

모할 지를 검토중이며 이달 말쯤은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이 투입될 경우 아쿠아리움의 규모가 예초 규모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민자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조직위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람회 부지 안에 200실 규모의 고급 콘도(호텔)를 지을 사업자 공모가 지난 11일 마감됐으나 응모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 박람회 숙박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조직위 관계자는 "콘도는 아직까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니며, 재공모 여부에 대한 방침은 이달 말쯤이나 결정될 것"이라며 "콘도의 경우 재정투입은 어려운 만큼, 재공모가 안 된다면 박람회장 주변 콘도나 호텔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

대법 조사단 ‘신 대법관, 이강국 헌재소장 만났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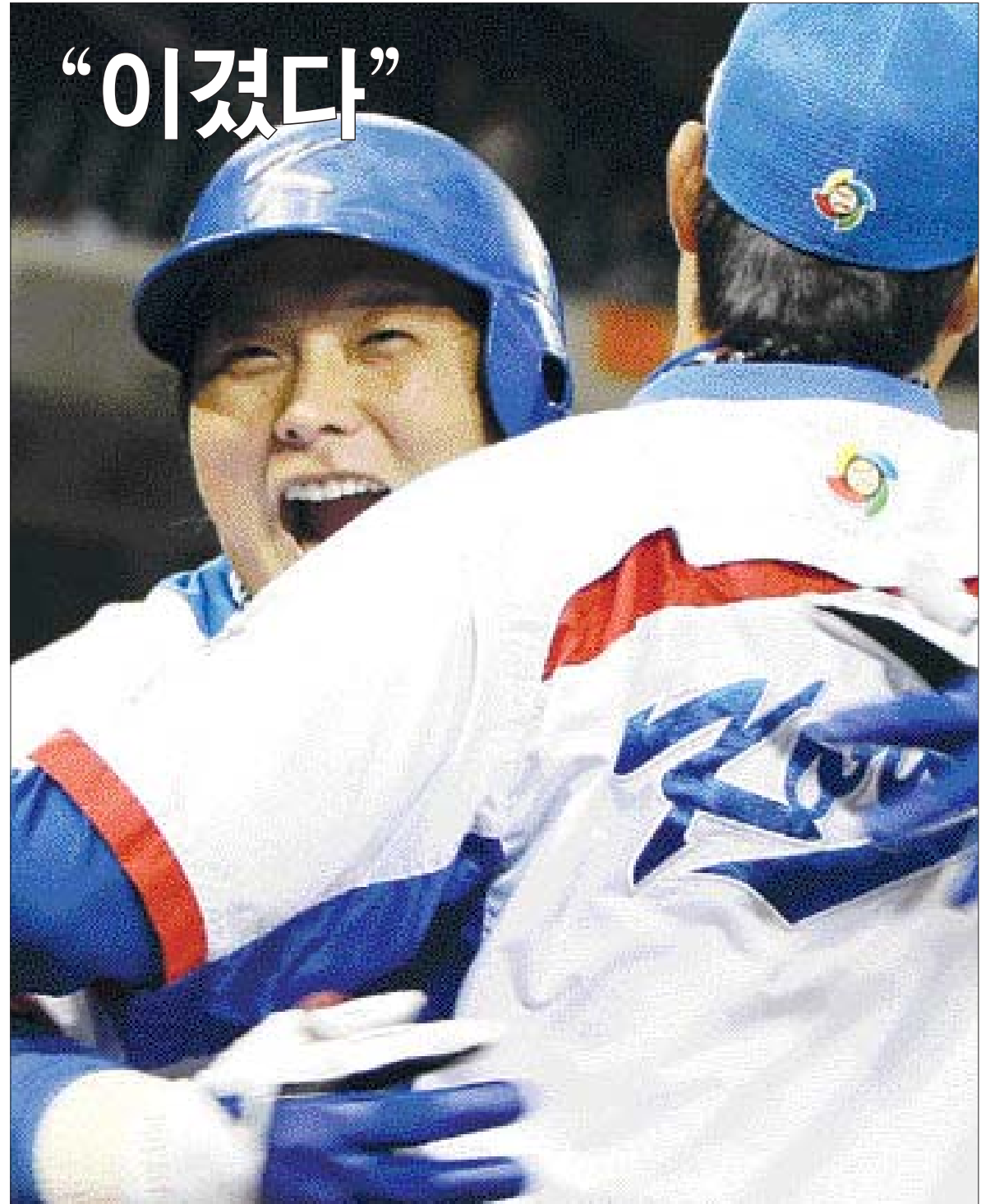
(관련기사 5면)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어떤 결론이 낄지, 신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대법원 4

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한 재판을 막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주의 촉구 등이 아니라 재판의 내용과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헌·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런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촛불사건 피고인을 직권보석한 판사에게 휴대전화로 ‘시국이 여수 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사단은 작년 10월9일 박재영 당시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한 뒤인 같은 달 13일 오전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재소장 소장을 찾아가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16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 2라운드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한국의 김태균이 4회말 1사 상황에서 역전 1점홈런을 친 뒤 동료 봉준근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관련기사 18면

광주·전남 11개 학교기업 ‘대박’

광주전자공고 카뷰티샵 작년 1억5천만원 매출 등 잇단 성공에 정부도 지원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주도로 설립된 학교기업들이 많게는 연간 1억원이 넘는 매출 실적을 올리는 등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취년 성과여서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광주·전남 사·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내 전문계고에서 운영 중인 학교기업은 광주 5개교, 전남 6개교 등 모두 11개교다. 전남에선 고흥실고 등 7개교가 창업 동아리를 운영중이다.

광주지역 1호 학교 기업으로 2005년 설립된 광주공고의 ‘Doit’은 학생들이 직접 광통신 부품을 제조해 연간 1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엔 수익금 중 450만원을 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광주전자공고 학교기업인 ‘카뷰티샵’에서 학생들이 ‘100% 고객 만족’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금으로 전달했고, 13명의 외부 직원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공 사례를 인정받아 올해에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재)한국산업기술재단으로부터 모두 4억 5천만원의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다. 또, 광주전자공고의 ‘카뷰티샵’

은 자동차 정비와 판금, 도장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1억 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뷰티샵’은 각 분야에 중견 전문가를 채용하고, 학생들의 도움으로 인건비를 절감해 시중 정비업체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과 순정 부품만을 사용해 단골 고객을 늘려나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北, 개성공단 남측 인원 귀환만 허용

남북 육로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귀환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

사태는 해소됐지만 인원의 방북과 물자 투입이 계속 차단됨에 따라 공단의 파행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북측은 이날 오후 3~5시 북에서 남으로 북귀환 사람과 13~14일 미(未)북귀환자에 대해 이날 오후 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오전 9시20분께 통보해왔으며 방북 계획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 조치로 이날 오후 3시 162명, 4시 121명, 5시 11명 등 총 294명이 귀환, 공단에는 우리 국민 431명이 남겨졌다. 159명은 현지에서 잔류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출신 박봉간씨 등 한국인 4명 사망

예멘서 폭발 사고

예멘 남동부 하드라마우트주의 고대 도시 시밤지역에서 지난 15일 폭발물이 터져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관련기사 5면>

16일 주 예멘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50분경(현지시간 오후 5시50분) 시밤지역을 관광하던 중 폭발물 사고로 관광객 18명 중 전 광주 MBC 상무 박봉간(70)씨 등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9일 9박10일(예멘·두바이 등) 일정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이들 관광객은 사고 당시 시밤지역을

둘러본 중이었다. 예멘 정부와 해의 언론 등은 이날 폭발사고와 관련, 자살폭탄 테러는 물론 매설 폭발물, 다이너마이트 폐기물의 폭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지에 영사를 급파하고 사건 수습 및 경위 파악에 나선 외교통상부는 테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

사망자는 박봉간(70)·김인혜(여·64)·주용철(59)·신혜운(여·55)씨 등 4명이다. 주씨와 신씨는 부부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상자는 홍선희(여·54)·박정선(40)씨 등 3명이다.

/이종행 기자 gotee@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1회 세계슬로우걸기축제

1st The World Slow Walking Festival

2009년 4월 18(토) ~ 4월 19(일)
개막식-18(일) PM 7:00(영도 신자본사역)
1일차 18일 10:00-원도-신자본사역, 해운 공원
개막식, 세계슬로우걸기(워킹)과 함께-신지 행사장식, 슬로우시어, 공연발, 코칭, MBC기요네스트 공개방송
2일차 19일 10:00-동신도
2009년도슬로우월드행렬, 세계슬로우걸기(워킹)과 함께-동신도, 연안대 기차역
일차 신자본사역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일차 정신도 프로그램 신청인원이 초과되어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 www.SLOWCITYWANDO.com
전화문의 : 061-567-5100/5260
주최 : 한도연 (사)세계걷기운동본부
주최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현대건설, 한국관광공사(여행), 광주광역시